

# 법신은 평등하다



##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부처님들은 저절로 나타나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 어디서나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중생이 있는 곳에서는 부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 법신은 평등하여 어느 곳이나 빠짐없이 미치지 않고 일그러 고의적으로 분별심을 가지고 행하는 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이라 하여 자연업(自然業)이라 했다. 본문에서는 여기에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고 대답을 한다.

“부처님들이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한다면 누구나 부처님을 보거나 신통변화를 보거나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이 이익을 얻어야 할 것인데 어째서 세상에서 모두 다 보지를 못하고 얻지를 못하는가?”

답은 이렇다. “부처가 나타나는 것은 중생들의 마음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중생의 마음이란 거울과 같다. 거울에 만약 먼지가 끼면 물체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중생의 마음에 때가 끼어 있으면 부처님의 법

신은 나타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법신이 평등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편협성에 사로잡혀 인위적으로 분별심을 일으키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자연업이라 했고 때로는 무공용(無功用)이라 하기도 한다. 아래의 법신은 개체적으로 분리되어 나와 대립하는 객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보고 못 보는 것은 다

### 법신은 끝없는 광명의 진원지

### 무한 공덕 함장해 불국토 장엄

만 중생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거울이 먼지가 쌓이지 않은 깨끗한 상태라야 물체의 모습이 비춰지듯이 중생의 마음에 번뇌의 때가 있으면 부처님 법신이 보이지 않게 된다. 것이다. 해동소(海東疏)에서 원효는 (섭대승론)의 말을 인용하면서 또 다른 비유를 들었다.

“비유하건대 깨진 그릇에는 물이 담길 수 없다. 물이 담기지 않은 그릇에

는 하늘의 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생에게 사마타(奢摩他:samatha) 곧 삼매(三昧)의 부드러운 마음이 지속적으로 간직되지 않고 나쁜 업을 짓는 허물이 계속 남아 있으면 부처님은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선정(禪定)의 정수(定水)에 부처님이 강물에 달이 나타나듯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금강경오가해 종경(宗鏡)의 금강경제강(金剛經提綱)에 나오는 사구송(四句頌)에 “報化非眞了妄緣(보신과 화신은 진짜가 아니라 허망한 인연일 뿐이요) /法身清淨廣無邊(법신이 청정하여 광대하여 끝이 없으니) /千江有水千江月(천강에 물 있으면 천강에 달이 있고) /萬里無雲萬里天(만리에 구름 없으면 만리의 하늘이 라네)”라고 하였다.

중생에게 부처님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하면 법신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로 설명해 놓은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중생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일반적인 신앙 정서에서 볼 때에는 번뇌심이나 산란심으로도 부처님을 보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때에는 응신이나 화신을 보는 경우다. 발심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계기가 부처님의 감응을 느끼는 데서 시작될 때도 있다. 또한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를 듣고도 발심하는 수도

있다. 발심정도에 따라 부처님의 법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 이 장에서 설하고 있는 중요한 대의이다.

수행이란 인간성의 성숙을 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발심공덕이 탁월한 인간성을 발현하고, 본래 갖추고 있던 마음속의 완전한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응용하는 경지를 법신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불타수용신(報佛他受用身)’을 얻어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 보불타수용신은 원효의 설명에 의하면 십지(十地)의 수행을 완성한 보살이 부처님의 법신을 체(體)로 하고, 나타나 작용하는 보신(報身) 곧 수행이 완성됨으로써 얻게 되는 좋은 과보(果報)를 누리는 몸을 말한다. 상주하는 몸으로 열반경에서는 금강신(金剛身)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법신(法身)을 광명으로 상징하기도 한다. 법신불 비로자나(毘盧遮那)를 광명변조(光明遍照)라 번역하는 것처럼 끝없는 광명이 나오는 진원지가 바로 법신이다.

<화엄경>에서는 보살들이 마음의 광명을 써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한다고 말해 놓은 경구가 있다.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의 두 장애를 떠나 무한한 공덕을 함장(含藏)하여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이 법신의 본래 기능인 것이다.



## 항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 무제(無題)

더러는 흔들리는 사람이요, 때로는 험뎅이는 중생이다.

젊은 시절 불교신문사에서 심부름할 때 동료 선후배 기자들이 수군거리며 나에게 불허진 별명인 ‘불칼’과 ‘일퐁’을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불칼’은 성질이 급하고 지랄같이 날카롭다는 뜻이고, ‘일퐁’은 일방통행의 준말로 고집불통을 의미한다.

늙음은 세월의 무게에 따라 피(血)가 삭아 곱셈이 완행이 된다는데 타고난 큰 목소리로 냐다 소리 지르는 못된 근성을 뱀의 허물처럼 지니고 있다. 타협도 모르고 원칙만을 고집한다. 대중의 뜻은 부처님 뜻이라는데 100명이 옳다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100명이 다 떠나도 외톨이의 외진 길을 걸어왔다. 후회는 없다.

어릴 적 어머니의 회초리 같은 교육으로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노력하여 거둔 수확이 아니면 멀리하는 지혜를 익혀왔다. 총무부장이면 인사부장의 위치지만 재임 중 일원 한 장 주머니 속으로 거둬

된다. 누가 무엇을 몰어도 참 앎(知), 참 봄(見)을 이루어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 착한 벗이 되는 간절심으로 이루어낸 깨달음이었다.

이후 중국에서 중국어 기본을 익혀 고어(古語)를 공부하게 된다. 수많은 경전과 선어록에 밑줄 쳐가며 하나 되는 기쁨이 솔찬하다. 하나를 보여도 열을 보이는 것이요, 열을 보여도 하나를 숨기지 않는 것이다.

여태까지 한국불교의 술한 <천수경> 강의집에 구업(口業)의 설명이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의 중복되는 논리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천수경(千手經)>이 의미하듯 코밑에 입만이 입이 아닌 것이다. 눈은 보는 입이요, 귀는 듣는 입이며, 콧구멍은 냄새 맡는 입이요, 배꼽 밑의 두 개의 생식기관은 배설하는 입인 것이다.

좁히면 아홉 개의 입이요, 넓히면 세포 하나하나가 탐구물 하나하나가 입인 것이다. 온 몸 그대로가 입 아님이 없는 것이다.

중도(中道)의 이해에 있어서도 경전에 등장하는 거문고 줄에 집착해 느슨해서도

## 윤회는 ‘당생윤회’요, 생각의 윤회일뿐 상호 연계로 ‘生·住·離·滅’ 되풀이된다

들인 일이 없다. 내장사 주지 4년에도 숨은 통장을 키우거나 노후자금이라며 어설근 것, 못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치게 철이 든다.

커피맛, 김치맛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룬 진리를 어느만큼 말씀으로 담아낼 수 있었겠는가?

사람의 두뇌에 간직하는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어들고 사라지기 마련인데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제자들의 합송으로 기록됐다는 경전에는 얼마만큼의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가 담겨있을 수 있는 것인가?

형이상학적인 문제지만 중론(中論)과 십이문론(十二問論), 백론(百論)에서도 접근방법이 서툴러 무아(無我)와 윤회(輪廻)에 대한 의혹이 물음표로 그 둘레를 넓혀 갔다.

하여, 제2의 발심으로 배낭 하나 매고 인도로 날아간다. 영문으로 입국서 하나 쓸 수 없을 만큼 외국어 문맹은 의지 하나로 버티며 노숙자보다도 더욱 비참한 구도자의 길에 접어들다. 인도 3년, 네팔 2년, 티베트 3년, 중국에서 머문 7년까지 15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한다. 인도에 머물 때 종교적인 아름다움 체렴을 이루게

평행해서도 고른 소리가 울리지 않음을 교과서처럼 여겨 왔던 것이다. 초기경전에서도 밝히고 있듯 중(中)은 정(正)인 것이다.

그러므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가운데 중(中)이 아니라 변두리와 모서리가 없는 이르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요, 정토(淨土)이며,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중(中)임을 알아야 한다. 입체의 수적착주(隨處作主)는 누리는 중(中)인 것이다. 중국의 삼론종(三論宗)에서도 밝히고 있듯 대(對)와 변(邊)에서 자유로운 것이 중(中)이요, 미(迷)와 사(邪)에서 얽매임이 없는 것이 정(正)인 것이다.

또 하나의 핵심사상인 무아(無我)에 있어서도 연기 법칙과 무아사상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이다. 우주의 창조주인 브라흐만(Brahman)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를 주재한 아트만(Atman)에는 기신론(起信論)의 진어(眞如)까지 끌어들이며 미련을 두고 있는지 안타까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명쾌하게 밝히지만 윤회는 당생윤회(當生輪廻)요, 생각의 윤회일뿐 영혼 따위는 없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상호 연계작용으로 생(生)·주(住)·이(離)·멸(滅)과 성(成)·주(住)·괴(壞)·공(空)이 되풀이 될 따름이다.

# 보살은 보리심을 구하는 존재



## 시인 도정 스님이 풀은 <대장부론>

### ㉔ 보살에게 보시하는 이유

若聞其足聲則壞其愛味。菩薩觀前受施福田。頗有共我等者遂見貪愛。眾生則與我等。所以者何。彼貪心無足我施心無厭。彼貪心者愛大施主。菩薩見多乞者亦深生愛敬。貪求者常求施主。欲乞施者常求乞者所欲與之。菩薩常與世人相乞者。皆就施者而乞。菩薩就乞者而施。(약문기족성즉괴기에미. 보살관전수시복전. 괴유공아등자수견탐에. 중생적여아등. 소이자하. 괴탐심주아시심무염. 괴탐심자아대시주. 보살견다걸자역심생에경. 탐구자상구시주. 괴걸시자상구걸자소욕여지. 보살상여세인상걸자. 개취시자이걸. 보살취걸자이시.)

번역 만약, 그 만족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곧 그 사람의 맛이 무너지나니, 보살은 앞서 받은 보시의 복전(福田)을 살핍니다. 자못, 나와 똑같이 보는 것을 따라 탐욕과 애욕이 함께 있다면, 중생이 곧 나와 더불어 같다고 여깁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저가 탐심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나는 보시의 마음을 싫어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가 탐욕심으로 큰 시주자를 사랑하지만, 보살은 많은 구걸하는 이를 볼 때, 역시 마음 깊이 사랑과 존경이 생깁니다. 탐욕으로 버리는 이는 늘 시주자를 찾지만, 구걸하는 이에게 베풀고자 하는 이는 늘 구걸하는 이의 바라는 바대로 줍니다. 보

살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구걸하는 사람이다. 모두 베푸는 이에게 나아가 구걸하지만, 보살은 구걸하는 이에게 나아가 베풀는다.

해설 보살은 남을 미워할 줄 모르는 바보처럼 보인다.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에 초의 선사(師)가 이르기를 ‘중생이 중생인 것은 욕심이 많아서이다. 그런데 욕심으로 치면 부처님만큼 욕심 많은 이가 세상에 또 없다’고 하였다.

중생은 자신을 위한 욕심으로 크게 보시하는 이를 찾고, 보살은 구걸하는 이를 위하여 크게 보시할 곳을 찾는다. 그 욕심의 모양이 다를 뿐, 둘 다 욕심쟁이들이다. 보살은 중생이 욕심을 부리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똑 같다고 여긴다. ‘저가 탐욕을 싫어할 줄 모르듯이 나는 보시를 싫어할 줄 모

른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심지어 탐욕에 빠진 이를 살펴보면 되돌려 자아의 마음을 살핀다. 그래서 그 탐욕에 빠진 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낸다. 그 구걸하는 이가 보살의 복전(福田)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복전(福田)은 복을 심어 거두는 밭이다. 한 알의 씨를 심으면 열매, 백배로 거둬들일 수 있는 밭이다. 밭에 씨를 뿌리듯 보시를 베푸는 마음이 보살의 근본바탕이다. ‘보살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보살은 무엇을 구걸하는 사람일까? 자신에게 구걸하러 온 사람에게 도리어 무엇을 구걸하며, 무엇을 채우는 존재일까? 바로, 보리심(菩提心)을 구걸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보리심은 주어야 비로소 얻게 되는 과보다. 사랑을 주고 또 주되, 아낌없이 주어야 얻게 되는 자기완성이다.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범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